

표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사 60:1)

만민중앙소식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news.manmin.or.kr

등록번호 : 다-1840(1989. 7. 12.)
편집처 및 발행소 : 만민중앙성결교회
발행인 : 이재록
인쇄인 : 김신경
편집인 : 빈금선

서울 구로구 구로3동 235-3번지 ☎02-818-7000
e-mail : manminnews@hotmail.com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사명을 띤 만민중앙성결교회

제386호(구406호) 2009. 3. 22.(격주간)

필리핀에 두루 퍼지는 성결 복음의 힘찬 행보

‘이미경 목사 초청 목회자 및 교회지도자 세미나’



강사 이미경 목사



2001 이재록 목사 필리핀 연합 대성회

마닐라 목회자 및 교회지도자 세미나 (빨라시오 데 마닐라 홀)

가톨릭의 나라 필리핀

7천여 개 섬으로 이루어진 섬나라 필리핀. 수세기에 걸쳐 스페인의 지배를 받은 영향으로 가톨릭교도가 전 국민의 80% 이상을 차지한다.

국어는 따갈로그어이며 세계에서 영어 사용 인구가 많은 나라 중에 하나이다. 이런 이유로 한국은 물론, 일본과 중국, 그리고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영어를 배우기 위해 많은 사람이 모여든다. 또한 국교가 가톨릭이므로 기독교에 대한 거부감이 적어 세계 선교사들이 많이 밀집해 있기도 하다.

우리 교회, 필리핀에 활발한 선교 펼쳐

우리 교회 필리핀 선교에 기폭제가 된 것은 2001년 9월, 마닐라 루네타 공원에서 열린 ‘이재록 목사 초청 필리핀 목회자 세미나 및 연합 대성회’였다. 이때부터 필리핀에 다방면으로 선교가 펼쳐진 것이다.

성회 이후 현지 목회자들은 하나 되어 성결의 복음을 지속적으로 공급받길 원했고, 현지에 있는 지교회를 통해 그 사역을 이뤄갔다.

2004년에 열린 광가시안 주와 바탕가스 시 손수건 집회는 필리핀 복음 전파에 힘을 실어 주었다. 2005년 10월부터는 케이블 TV를 통해 GCN(세계 기독교방송 네트워크) 프로그램이 송출되어 현재 필리핀 대부분 지역이 시청권에 들어가 있다.

2006년 5월에는 우리 교회 부설 만민 TV에서 필리핀 국제 케이블 TV 콘퍼런스에 참가해 본격적으로 케이블 방송을 통한 선교에 박차를 가했다. 또한 2006년 6월,

세부에서 열린 WCDN(세계 기독교사 네트워크) 제3회 국제 기독교학 콘퍼런스를 통해 의학적 등에 영적 잠을 깨우고 있다.

목회자 및 교회지도자 3,800여 명이 참석한 세미나

이러한 상황에서 필리핀 성도의 성결 복음과 권능의 역사에 대한 사모함이 어느 때보다 뜨겁다.

이에 올크리에이션 글로벌 네트워크(회장 로미오 콜퍼즈 목사)에서는 우리 교회 부목사인 이미경 목사를 초청, 초교파적으로 목회자 및 교회지도자 세미나를 개최했다. 지난 2월 26일과 28일, 수도 마닐라 ‘빨라시오 데 마닐라 홀’과 까비테 주 다스마리냐스 시 ‘간틴 부한 홀’에 목회자 및 교회지도자 총 3,800여 명이 참석해 성회를 이루었다.

강사 이미경 목사는 “권능은 죄악이 관영한 이 세대에 복음 전파와 성도들의 믿음 성장을 위해 필수적인 것”이라 전제한 후, ‘권능받을 수 있는 합당한 자격’, ‘권능받는 비결’, ‘권능을 통해 나타나는 역사’ 등을 체험 사례와 함께 각 지역에서 약 8시간 동안 전했다.

그 결과 60여 교회가 지교회로, 550여 교회가 협력 교회로 가입했으며, 만민국제신학교(MIS)에 1,040여 명이 가입할 정도 폭발적인 반향을 얻었다.

필리핀 유력 일간지 마닐라 불리언 지는 세미나 소식을 보도했으며, 이미경 목사는 까비테 주 하원의원과 다스마리냐스 시 시장으로부터 공로패를 받았다.

은유의 힘

해와 바람이 길을 가는 나그네의 외투를 누가 먼저 벗길 수 있는지 내기를 했습니다. 먼저 바람이 “저런 외투쯤이야.” 하고 자신만만해서 나무도 뽀뽀할 만큼 강한 바람을 내뿜었지요. 그러자 나그네는 외투를 더 단단히 여미었습니다. 다음으로 해가 여유로운 미소를 띠며 따스한 별을 내뿜자 그 사람은 곧 외투를 벗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은유’는 바로 이 해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은유’는 어떤 물리적 방법으로 위협하지 않고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 오직 선과 사랑으로 상대의 마음을 얻는 힘을 발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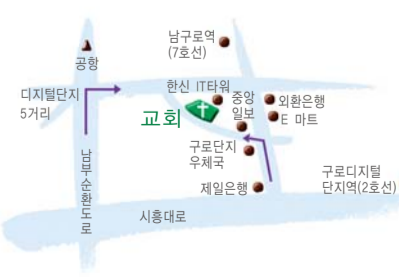
“너희 중에 지혜라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도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은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야고보서 3:13)

글 이재록 목사
한국일보 연재 길 칼럼에서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주일 대 예배	1부 · 오전 10:00	화요찬양예배 [대학·가나안·청년·비율·마리아]	오후 8:00
	2부 · 오전 11:30		
	[빛과소금선교회 오후 9:00]	수요찬양예배 [빛소금]	오후 9:00
	[요식업선교회 오후 11:00]	토요찬양예배 [중·고등부]	오후 4:00
		토요찬양예배 [아동부]	오후 3:00
주일저녁예배	오후 3:00		
금요철야예배	오후 11:00	아동주일학교 주일예배	1부 · 오전 9:00
수요예배	오후 7:00		2부 · 오전 11:40
새벽예배	새벽 5:00		저녁 · 오후 1:30

교회 약도



- 시내버스: 5536, 5615번 (교회앞 하차)
503, 504, 571, 652, 5618, 5619, 5626, 5630, 5712, 5714번 (디지털단지거리 하차)
- 지하철: 7호선 남구로역(2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
2호선 구로 디지털단지역(1번 출구)에서 환승 5536번 시내버스 (교회앞 하차)
- 교회버스: 각 지역별로 서울시 및 경기도 일원에 운행
(문의: 차량팀 ☎ 02-818-7391~5)

만민중앙소식을 받아보시려면

- 이 소식을 받아 보기 원하시는 분은 먼저 전화로 구독신청하신 후 우송료를 지정은행 또는 우체국에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 우 송 료 : 1년분 5,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 구독신청 : 02-851-3845, 070-8240-5609
 - 온라인 번호 (예금주: 위성영)
- 국민은행 362-21-0201-106
우리은행 072-255732-02-201
농협 100072-52-061722
우체국 012419-02-047269



당회장 이재록 목사

새 예루살렘의 열두 기초석 (4)

하나님 말씀은 그 자체가 빛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자기 속에 거하는 사람은 내면으로부터 빛이 나옵니다. 이 영적 빛은 자연스럽게 배어나와 주변을 밝히며 얼어붙은 마음도 녹입니다. 지난 호에 이어 아름다운 빛을 내는 새 예루살렘의 열두 기초석 중 아홉 번째에서 열두 번째까지 이루는 보석의 영적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1. 아홉 번째 기초석 '담황옥'

'담황옥'은 토파즈라 불리는 붉은 오렌지색의 투명한 보석으로 '양선'을 상징합니다. 사전적 의미는 '어질고 착함'이며, 영적 의미는 '성령 안에서 선을 추구하는 마음'입니다. '자기 보기에 선'이 아닌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인 것을 추구하는 마음입니다. 따라서 양선이 임한 사람에게는 자연스럽게 선이 배어나오기 때문에(마 12:35),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지 선한 말과 행실이 나옵니다. 선한 그리스도 향기를 내며 주변에 덕과 사랑을 베풀지요.

마태복음 12장 19, 20절에는 예수님의 양선에 대해 기록합니다. 다투지도 들레지도 아니하며 그 소리를 길에서 아무도 듣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걸음걸이나 몸가짐, 언어 습관은 흠이 없고 교양을 갖춘 온전한 모습입니다. 진리 안에서 선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예수님 모습을 닮아가며 입술의 말도 달라집니다(잠 22:11). 또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신다 했습니다. '상한 갈대'란 '세파에 시달리고, 마음에 상처를 받아 심령이 상한 사람'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꺼져 가는 심지'란 '마음이 악으로 심히 물들어 영혼의 등불이 꺼져 가는 사람'을 뜻하며, '꺼져 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마음'은 구원받을 가능성이 아주 조금이라도 있다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연약해 시험 환난에 넘어져 혼자서는 다시 교회에 나올 힘이 없는 사람, 아직 버리지 못한 비진리로 인해 주변에 해를 끼치고 민망해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 사랑과 인정받기 위해 몸부림치는데 잘 안되니 때로는 속상해 악을 발하는 사람 등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품을 줄 알아야 합니다.

옳고 그름만을 논해 상대를 꺾으려는 것이 아니라 진실과 사랑으로 선대함으로써 그 마음을 녹이고 감동을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2. 열 번째 기초석 '비취옥'

'비취옥'은 옥수의 일종으로 반투명하며 청록색 빛이 나는 보석으로 '절제'를 상징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풍성하면 좋겠지만, 질서를 따라 아름답게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절제가 있어야

합니다. 주 안에서는 무엇이든지 진리로 분별하고 매사에 절제하면서 성령의 소욕을 좇아야 합니다. 성령의 음성을 밝히 듣고 행하면 절제해야 할 때 절제할 수 있으므로 만사형통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제의 열매는 중요하며 온전함을 이루는 데에 꼭 필요하지요. 성령의 열매도 사랑의 열매가 있는 만큼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의 열매를 맺으며 이 모든 것은 절제를 통해 온전해집니다. 사람이 영적으로 절제하지 못하므로 비진리 가운데 살아가며 시험 환난을 당하고 하나님 사랑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사명을 위해 철저히 절제된 삶을 산 세례 요한은 세상과 완전히 구별되어 살았습니다. 홀로 광야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했으며,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 등 절제하며 살았지요. 이러한 삶을 통해, 그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준비된 자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성령 안에서 마음을 절제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육신의 정욕을 철저히 절제하고 오직 성령의 소욕을 좇아야 하지요. 이렇게 영의 마음을 이뤄가면서 때에 따라 절제함으로 각 마음의 강약을 조절해 아름답게 조화를 이뤄야 하는 것입니다.

3. 열한 번째 기초석 '청옥'

'청옥'은 청색을 띠는 투명한 보석으로 '청결함과 거룩함'을 상징합니다. 사전적 의미의 청결은 '맑고 깨끗함'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청결은 '마음에 죄가 없는 상태' 즉 '어떤 흠도, 점도, 티도 없는 깨끗한 마음'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만큼 깨끗한 참 마음이 됩니다(히 10:22). 우리가 손이나 몸을 청결히 하려면 물로 씻듯이, 마음을 청결하게 하려면 영적인 물 곧 하나님 말씀으로 씻어야 합니다. 말씀에 '버리라', '하지 말라' 하신 대로 순종하면, 점점 마음에서 비진리와 악이 씻겨 나갑니다. '하라', '지키라' 하신 대로 순종하면, 세상 죄악에 다시 물들지 않도록 맑은 물로 계속 공급받으니 늘 깨끗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직접 뵈 수 있는 복이 주어집니다(마 5:8) 내세뿐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게 됩니다.

에녹은 65세 때부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았습니다(창 5:21-24). 죄가 전혀 없는 깨끗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에녹이 하나님께서는 너무 사랑스러워 아름다운 천국에 있게 하시며 그 곁에 더 가까이 두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에녹은 세상을 바라보지 않았고, 세상 어떤 것보다 더욱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부모를 사랑하고 순종하며 형제들과도 우애가 깊었지만,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했지요. 또한 하늘과 자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그리워하며, 하나님과 교통하기를 즐겨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심히 사모하며 찾고 갈망하는 에녹이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와 동행해 주셨습니다(잠 8:17).

4. 열두 번째 기초석 '자정'

자수정이라고도 하는 '자정'은 보랏빛을 내는 투명한 보석으로 그 빛이 고상하고 아름다우며 '온유'를 상징합니다. 사전에서는 온유를 '성격이 온화하고 부드러운'이라고 정의합니다. 영적으로 온유는 '성격이 온화하고 부드러우면서도 모든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큰 마음'입니다. 솜털같이 포근하고 부드러워 많은 사람이 깃들여 쉴 수 있는 마음이며, 모든 것을 선으로 이해하고 사랑으로 감싸 주는 너그러운 마음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졌다 해도 그것이 마음속에만 있으면 별 의미가 없습니다. 행함으로 선과 사랑을 나타내야 합니다. 즉 나로 인해 다른 사람이 힘을 얻고 따뜻함을 느끼며, 마음의 쉼을 얻게 해 주는 덕도 함께 필요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온유한 사람은 선입관이나 편견을 가지고 상대를 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얻을 수 없던 평안을 그

에게서 느끼고 힘을 얻으면서, 스스로 마음을 굽히고 들어와 그 안에 머물기 원합니다. 마치 더운 여름 날, 시원한 그늘을 제공하는 큰 나무와 같아서 편히 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 온유를 이룬 사람을 통해 주변의 영혼들은 쉼을 얻고 행복해지지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아름답다 하시며 많은 영혼을 품어 진리로 인도한 상급으로 천국에서 넓은 땅을 주시는 것입니다(마 5:5).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승한 모세(민 12:3)는 2백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 시켰고, 광야에서 약 40년을 인도했습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듯 수많은 백성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 뜻대로 인도했지요. 이처럼 영혼들을 갈무리 하는 사명은 물론, 그 어떤 사명이라도 온유한 마음으로 감당하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각각 다른 환경과 성품을 가졌기 때문에 때론 의견이 부딪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세상 속에서 나를 비우고 다른 사람을 품을 줄 아는 온유한 마음이야말로 진정 아름다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예루살렘 성벽의 열두 기초석이 상징하는 각각의 영의 마음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믿음, 곧음, 희생, 정의, 충성, 열정, 자비, 오래 참음, 양선, 절제, 청결, 온유 등 이 모든 영의 마음을 종합하면 예수 그리스도 마음, 아버지 하나님 마음입니다. 이는 완전한 사랑을 의미하며 당당히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열쇠가 완성되는 것이지요.

따라서 이러한 영의 마음을 온전히 이루어 새 예루살렘 성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기쁨과 위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취옥이요
- 열 한째는 청옥이요
- 열 둘째는 자정이라”
- (요한계시록 21:19,20)



세계인만민

MANMIN IN THE WORLD

우리 교회에서 나타나는 시공을 초월한 권능의 역사와 성결 복음은 많은 사람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있다.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뒤,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는 세계 속 만민의 젊은이들을 만나본다.

**즐겁고 아름다운 세상,
따로 있었어요!**

심테드 (미국 뉴욕, 21세)



2008년 11월 23일, 저는 교회를 가기 위해 운전하며 어머니와 함께 뉴욕 화이트스톤 다리 위를 가고 있었습니다. 돌연 여유 있게 뒤따라가던 앞 차가 차선을 바꾸는 순간, 그 앞에 차가 멈춰 서 있는 것이 보였고 급브레이크를 밟았지만 그대로 들이받고 말았지요.

잠시 후 정신을 차려 보니 조수석 앞 우리는 거미줄처럼 깨져 있고 차 안은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차 바퀴는 모두 찢기고 차체 앞은 종이를 마구 구겨 놓은 듯 했으며, 차 앞 뚜껑은 떨어져나가 흉하게 부서진 부분을 드러내고 있었지요. 분주히 오가는 경찰차와 앰블런스, 들것에 실려 이송되는 부상자들... 그 상황에서 서도 어머니와 저는 떨었습니다.



당시 사고 차량

저의 아버지는 목회자로서 미국 인터내셔널 만민교회를 담임하십니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을 안 뒤, 아버지의 사역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지요.

저는 메릴랜드 대학교에 다니면서 노래와 악기 연주, 다양한 장르의 음악 감상을 매우 좋아해 음악하는 친구들을 가까이했습니다. 부모님은 제

가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길 원하셨지만 저는 그 기대를 저버렸습니다.

매주 토요일 밤늦게 뉴욕으로 가서 주일예배를 마친 뒤, 메릴랜드 대학교 기숙사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편도 5시간 걸리는 먼 거리는 매우 힘들고 피곤했지요.

저는 모범생으로 공부할 땐 공부하고 놀 땐 놀 줄 아는 이 젊음이 좋았고, 이것이 인생을 즐길 줄 아는 지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은 토요일 오후면 어김없이 전화해 인터넷 예배를 드리라고 하셨고, 그 때마다 짜증이 났습니다. 친구들과 가장 즐겁게 지내는 주말이었으니까요. 주일에 학교 내 교회에 나가 예배를 드린다 했지만 시간만 때우는 형식적인 예배였습니다.

2008년 어느 날, 아버지께서는 아무래도 안 되겠다며 휴학하자고 하셨습니다.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절망감으로 견디기 힘들었지요.

반강제로 뉴욕에 끌려 온 저는 매일 저녁 기도회, 성경공부, 수요일예배, 심지어 심방까지 따라다녀야 했습니다. 매주 토요일이면 인터넷으로 본교회 주일예배에 참석해야만 했지요. 친구들과의 채팅, 전화 등 재미있는 일이 준비하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인생의 즐거움을 만끽하지 못하는 제 자신이 처량하고 그것을 누리는 친구들이 부러웠습니다.

그러던 제게 변화가 왔습니다. 천국 설교를 들으면서 문득 이 상태로는

천국에 갈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저는 두려웠고, 천국에 가고 싶다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회개했습니다. 이런 은혜가 임하자 아버지께서는 비탈리 피쉬버그 박사님이 인도하는 손수건 집회에 동행하라고 권하셨습니다. 저는 집회 때 기타를 치며 찬양을 인도했지요.

그때 참 신기한 일들을 체험했습니다. 밤에 다니엘 철야를 끝내고 밖에 나가면, 달 주변에 원형 무지개가 크게 떠 있는 것입니다. 미국 곳곳에 있는 성도들에게 전화해 알려주면 그들도 동일하게 보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본교회 상공에도 동일하게 나타났다는 소식을 당회장님 설교 때 들으면서 저는 흥분되고 하나님 섭리에 놀랐습니다.

그러던 중, 매월 마지막 주일에 교회에서 열리는 손수건 집회 때였습니다. 목사님들이 제게 기도해 줄 때 회개가 임하며 눈물이 솟구쳤습니다.

“하나님, 세상 친구들을 너무 좋아했던 것,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지 못했던 것, 부모님께 순종치 못했던 것... 용서해 주세요.”

그 뒤, 저는 예배 태도가 달라졌고, 찬양 모습도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쯤이야 괜찮겠지!’ 했던 좋지 못한 습관들을 끊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교통사고가 난 것입니다. 저는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 받고 변화되어 가는 중에도 세상 것들을 완전히 끊지 못하고 빼앗긴 마음들...**
주님 앞에 “사랑합니다, 나의 주님” 하며 찬양하고 고백하지만, 여전히 세상 것을 사랑한 마음들...
결코 존귀하신 하나님과 이 세상의 것과는 함께 사랑할 수 없음을 이제야 깨달은 것입니다.”

3년 전, 선교사로 파송되기 위해 본 교회에 가신 아버지께서 당회장님께 제 사진 기도를 받은 뒤, 몸 전체에 퍼져 있던 18년 된 아토피성 피부염을 깨끗이 치료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체험이 있음에도 하나님을 더 사랑치 못한 저를 큰 사고 가운데에서 보호하시고 깨우쳐 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10년 전, 하나님 능력으로
살아난 신시아예요.**

신시아 (파키스탄 라호르, 17세)



라호르



1999 7 23 10:49:12am

서울

1999년 6월 15일 새벽, 제 나이 7살 때였습니다.

갑자기 구토를 심하게 하자 아버지는 기도해 주셨고, 괜찮아지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며칠 후 다시 설사까지 동반한 구토가 시작되었습니다. 심지어 파랑, 연두, 노란색 물질까지 토해내더니 혈변이 나왔지요. 배는 매우 딱딱했고 저는 심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결국 저는 라시드 병원에 입원했고, 검사 결과 대장 폐쇄에 셀리악(보리 등에 함유된 단백질인 글루텐에 대한 알

레르기 반응으로 소장을 손상시키는 유전질환)까지 겹쳐 매우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몸무게가 11kg으로 허약해 수술할 수도 없었지요. 아무 것도 먹을 수 없었고 몸을 움직일 수조차 없었습니다. 입에서는 분비액이 끊임없이 나와 항상 손에 휴지를 쥐고 있어야 했습니다.

부모님과 형제들은 금식 기도를 했고, 성도님들도 기도했습니다. 그때 한국에 머물던 큰 언니는 이 소식을 듣고 절박한 심정으로 이재록 목사님께 제

사진을 보여 드리며 믿음으로 기도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순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7월 23일 금요일 밤 10시 50분경, 파키스탄 시간으로는 저녁 7시 50분경(썬머 타임 적용)이었습니다. 서울에서 당회장님이 기도해 주신 동일한 시간에 라호르에 있는 제가 치료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뒤부터 저는 볼 수 없던 변을 보기 시작했고, 급속히 호전되어 마비되었던 장 기능이 완전히 회복되었습니

다. 병원에 한 달 넘게 입원해 있었는데, 기도받은 지 3일 만에 퇴원할 수 있었지요. 의사들도 매우 놀라워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퇴원 후, 조금씩 음식을 섭취하며 몸의 기운을 찾았고, 약 3개월 만에 저는 혼자 걸을 수 있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저는 고등학교 1학년이며, 매우 건강합니다. 제 꿈은 의사가 되어 저의 간증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이재록 목사님의 기도로 기적적으로 치료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역경의 열매, 그 축복의 비결은 기쁨과 감사

반드시 심은 대로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서는 믿음대로 축복의 길을 여시고 친히 인도해 주셨습니다.

허 정 장로 (광주만민교회, 신한생명 서울중앙인슈(주) 광주 지사장)

내가 광주만민교회에 온 것은 1997년 9월 7일, 부흥성회 진단지를 통해서였다. '365일 기도하는 교회' 매일 밤 기도 모임이 있다는 문구가 내 마음을 사로잡았다. 바로 서울 본교회와 화상으로 함께하는 다니엘철야이다. 그 뒤, 나는 날마다 기도하며 예배를 통해 말씀을 들으면서 인생의 참된 의미를 찾아 행복한 신앙생활을 했다.

잉어 빵 장사를 해도 믿음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러던 1998년 어느 날, 2년 전부터 두 차례 보증을 선 것이 잘못되어 월급 차압을 당했던 나는 그나마 다니던 회사를 무일푼으로 퇴직해야 했다. 리어카에서 잉어 빵을 만들어 팔게 되었지만 마음만은 즐거웠다. 매일 밤 다니엘철야에 나가 기도할 때 '보증서지 말라'(잠 22:26)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을 뉘우치며 하나님 사랑에 오하려 감사했다.

비록 이 교회로 인도받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잘 몰라 한 일이지만 하나님께 너무 민망하고 죄송했다. 전기 요금을 못내 전기가 끊기고, 기

름 값을 아끼느라 한겨울에 찬물로 목욕을 해야 할 때도 처량하다든가 신세한탄은 없었다. 오히려 찬송이 흘러나왔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니 누가 나의 이 기쁨을 빼앗을 수 있으랴. 근심 걱정할 일이 없었다.

하나님께 심고 이웃을 섬기니

2003년 2월, 교회에서 성전 건축을 한다고 했다. 쪼들리는 살림이었지만 나도 힘껏 헌금하리라 마음먹었다. "가난을 면하려면 어려울 때 믿음의 씨앗을 심어야 한다"고 말하자 아내도 흔쾌히 동의했다. 아내가 참으로 사랑스럽고 고맙았다.

하루는 꿈에 당회장님께서 '비용을 절감하고,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며 축복받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다. 근검절약하면서 가족끼리 오붓하게 서로 사랑하면서 산다면 얼마나 좋은가.

우리 가족은 신앙으로 푹푹 뭉쳤다. 다소 불편해도 감사하고 어찌 하든 서로 힘과 용기를 주려고 힘썼다. 그리고 주변에 어려운 분들에게 작은 액수지만 보탬을 드렸다. 그분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기

바라는 마음에서였다.

축복의 길로 인도받아

나는 잉어 빵 장사를 그만둔 뒤에도 아파트 계단 청소 등을 하며 번듯한 일자리를 찾아 헤맸다. 절박한 심정으로 21일 작정기도를 여러 차례 하며 하나님께 매달렸다.

"하나님, 저도 축복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하실 수 있는 깨끗한 마음으로 그릇 준비하길 원합니다."

2006년, 어느 분이 수입이 괜찮다고 넌지시 말을 건네 보험설계사로 발을 내디뎠지만 보험은 문외한이라 막막하기 짝이 없었다. 한 달 남짓 짚짚 매다가 접고 말았다. 그런데 당회장님께서는 별 때마다 "거기 잘 다니고 있죠?" 하고 물으셨다. 이것이 두 세 차례 반복되자 당회장님이 모르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분명히 무슨 뜻이 있으시겠구나 하는 마음에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 무렵 보험을 통해 축복받아 간증하는 성도들을 볼 때마다 '나도 잘 적응했어야 했는데...' 하는 자

책과 함께 더 좋은 기회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었다.

그때 마침 신한생명 서울중앙인슈(주)에서 광주에 지사를 개설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나는 무작정 사장님을 만났다. 지사 개설을 요청했는데 쾌히 승낙해 주셨다. 마침내 2007년 3월 15일, 나를 포함한 직원 3명이 광주 지사를 개설했다.

영육간에 풍성해져

직원들은 서로 배려하고 희생할 뿐 아니라 자신의 보험 노하우를 가르쳐 주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다. 또한 한 달에 한 번씩 본사와 광주 지사에서 드리는 정기예배를 통해 믿음으로 하나 되었다. 그 결과 직원이 19명으로 급성장했고, 나는 지사장이 되어 넘치는 축복을 받고 있다.

일가친척이 복음화 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부부는 남·여선교회 회장 등 귀한 직분도 받았다. 역경에서도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린다.



난치병 '갑상선 기능저하증' 믿음으로 완전정복! 이희정 집사 (창원만민교회)

2006년 봄, 갑자기 목이 붓고 몸무게가 일주일에 1kg씩 늘더니 금방 20kg이 늘어났습니다. 병원 진단 결과, 갑상선 기능저하증(갑상선 호르몬이 적게 분비되거나 결핍되어 나타나는 증상)이었습니다. 이 병은 대부분 스트레스가 원인이며 체중이 늘고 항상 피곤하며 평생 약을 복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병은 점점 깊어지고 몸무게가 급속히 늘다보니 피곤하고 무기력한 날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전명숙 담임목사님은 심방을 통해 제게 믿음을 심어 주려고 애썼지

만 선뜻 영적 믿음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었지요.

그러던 2007년, 공황장애로 극도의 불안에 시달리던 남편 강경봉 집사가 전명숙 담임목사님의 손수건 기도(행 19:11,12)로 치료된 뒤, 술을 끊고 십일조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달라진 모습이 제게 믿음이 되었고, 예배를 통해 은혜가 쌓여 가니 어느 순간 '믿음으로 기도받을 때야 응답받을 수 있다'는 깨우침이 왔습니다. 저는 약을 끊고 기도로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주일 성수와 십일조를 시작했습니다.

2008년 5월 말, '특별 은사집회'에 참석해 당회장님께 기도받은 뒤 제 몸에 변화가 왔습니다. 물먹은 솜처럼 무거워 아침에 일어나는 것조차 힘겹던 몸이 예전처럼 가벼워지고, 살이 점점 빠지며, 약을 끊은 지 두 달이 되어 가는데도 몸이 점점 회복되었습니다.

12월 1일, 정확한 진단을 위해 찾은 병원 검사 결과, 갑상선 호르몬 수치가 정상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갑상선 기능저하증 소견

항목	검사결과	참고치	비고
TSH	5.87	0.35-5.50 uIU/ml	↑
FT3	1.87	3.50-5.40 pg/ml	↓
FT4	0.81	1.00-1.76 ng/dl	↓
TPOAb	11.20	0-10 IU/ml	↑
TGAb	3.17	0-10 IU/ml	↑

▼갑상선 기능저하증이 사라진 소견

항목	검사결과	참고치	비고
TSH	1.33	0.35-5.50 uIU/ml	정상
FT3	5.87	3.50-5.40 pg/ml	정상
FT4	1.87	1.00-1.76 ng/dl	정상
TPOAb	11.20	0-10 IU/ml	정상
TGAb	3.17	0-10 IU/ml	정상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 부산만민성결교회 부산광역시 진구 부암 1동 275-77 ☎070-8223-4191~4, 010-5335-5424
- 서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라2동 1323-12 ☎051326-1537, 010-5521-2073
- 대구만민교회 대구광역시 북구 고성동 17가 104-9 ☎053356-4717, 010-2018-8410
- 새대구만민교회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물 1동 1281 지하 ☎053783-3017, 010-7112-3017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동 37-1 ☎042625-1205, 633-6283, 011-434-3927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동림동 909-4 ☎062513-2455, 011-387-0263
- 새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1181 ☎062372-1002, 011-601-1070
- 동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문흥동 1001-2 ☎062266-7001, 011-637-6443
- 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동 1532-3 ☎052257-5011, 010-9663-1537
- 남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남외동 549-46 ☎052291-2253, 016-505-1537
- 안성만민교회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진사리 102-1 ☎031652-9981, 016-278-7712
- 평택만민교회 경기도 평택시 비전 2동 221-7 ☎031665-1405, 011-358-5973
- 천안만민성결교회 충남 천안시 성정동 722-3 ☎041577-7077, 010-3447-7077
-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신관동 600-22 ☎041881-7000, 010-3030-7025
- 서산만민교회 충남 서산시 잠흥동 564-15 ☎041667-4721, 010-3708-1537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권곡동 535-16 ☎041546-1537, 011-701-0244
- 사랑만민교회 충남 계룡시 금암동 16-4 ☎042841-0091, 010-7195-1099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흥덕구 수곡1동 173-11 ☎043293-7077, 010-9271-7017

- 새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상당구 율령동 956 ☎016-215-0116, 010-4155-5880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연수동 1100 ☎043845-0617, 010-2278-0641
- 마산만민성결교회 경남 마산시 회원구 회원2동 626-1 ☎055247-8891~2, 010-3559-9067
- 밀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내이동 1524-14 ☎055353-9192, 010-3745-2119
- 진주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리리 301-5 ☎055852-5815, 010-2536-2515
- 김해만민교회 경남 김해시 부원동 626-18 ☎055322-7055, 018-605-2254
- 창원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중앙동 95-3 ☎055289-9522, 011-9331-4405
- 통영만민교회 경남 통영시 용남면 화삼리 965-1 ☎055648-9107, 011-214-8891
- 경주만민교회 경북 경주시 동천동 835-6 ☎054748-5777, 010-3747-5777
- 포항만민성결교회 경북 포항시 북구 죽도동 58-14, 4층 ☎054281-9367, 010-8433-2073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효자동 192-3, 2층 ☎054281-2468, 010-7940-9367
- 구미만민교회 경북 구미시 오래동 742-4 ☎054464-4512, 010-3343-1537
- 여수만민성결교회 전남 여수시 둔덕동 500-5 ☎061652-8311, 010-3592-9522
- 목포만민성결교회 전남 목포시 상동 873-6 ☎061284-3133, 010-2629-8275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천정리 산153 ☎061452-7443, 011-608-3037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2가 929-1 ☎063223-9991, 018-202-1537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모현1동 250-3 ☎063853-0675, 011-671-7191
- 춘천만민교회 강원도 춘천시 효자동 671-11 ☎033251-1144, 010-7770-2073

- 원주만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동 475 ☎033766-1535, 010-9108-2073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영랑동 163-64 ☎033637-0271, 010-7733-3731
- 강릉만민교회 강원도 강릉시 명주동 12-2 ☎033641-3790, 017-334-7750
- 제주만민교회 제주시 연동 2307-5 ☎064745-0675, 010-2468-2251
- 영동지성전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60-5 ☎02556-8517~8, 010-7223-2073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수유3동 188-26 ☎02995-9951, 011-1717-1217, 011-719-2073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월피동 508-1 ☎031485-9143, 017-366-5914
- 일산지성전 인천시 남구 주안 5동 23-41 ☎032863-9857, 011-287-7369
- 검단지성전 인천시 서구 마전동 698-12 ☎032569-3835, 010-7720-7770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아람동 367-4 ☎031781-9830, 017-355-1928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452-3 ☎031905-2419, 019-276-101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735-1 ☎031552-7397, 010-2290-1856
- 강릉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길1동 348-5 ☎02489-3766, 016-776-1017
- 부평지성전 인천시 부평구 부평 4동 890-2 ☎032528-3830, 010-7720-7770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신동 158-5 ☎031202-8480, 010-2213-2073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중리동 465-4 ☎031635-9103, 016-718-7458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3동 165-11 ☎031840-2906, 019-251-3149

주일 대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철야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이용한 동시 화상예배로 함께 드립니다.